연화장세계

제13호

2012년 8월

해 원 사 110-849 535-1 / 02)379-1755 F379-5108

연화세계 477-824 경기 가평군 상면 행현2 388 / 031)585-5108 F584-5108

홈페이지: www.yeonkkot.com / 발행 편집: / : yeon9@hanmail.net

알림마당 해원사 새소식

■ 소원성취 발원 천일 관음기도 8월 6일(월) 4백일 기도 입재

<사진 : 연화세계 석불>

천일기도	입 재 ~ 회 향
4백일	2012년 8월 6일 (음 6. 19) 2012년 11월 13일 (음 9. 30)
5백일	2012년 11월 14일 (음 10. 1) 2013년 3월 24일 (음 2. 13)
6백일	2013년 3월 25일 (음 2. 14) 2013년 6월 22일 (음 5. 14)
7백일	2013년 6월 23일 (음 5. 15) 2013년 9월 30일 (음 8. 26)
8백일	2013년 10월 1일 (음 8. 26) 2014년 1월 8일 (음 12. 8)
9백일	2014년 1월 9일 (음 12. 9) 2014년 4월 18일 (음 3.19)
1천일	2014년 4월 19일 (음 3. 20) 2014년 7월 27일 (음 7. 1)

3년 동안(2011.11~2014.7) 매 백일마다 입재하는 소원성취발원기도입니다. 지난 8월 6일 4백일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 주력기도 등

- 기도비 : 10만원 (백일마다)

■ 칠월칠석 기도 : 8월 24일 (음 7.7)

해원사에서는 매월 음력 7일 칠성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칠월칠석일로 더 의미있는 날입니다. 불교에서는 칠성을 치성광여래 그리고 좌우보처 일광보살, 월광보살로 화현시켰습니다. 칠월칠석일에 가내태평, 액난소멸, 자손들의 수명과 복, 무병장수를 기원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양 올리실 분 : 생미, 과일, 떡, 꽃)

- 일 시 : 8월 24일(금) 오전 10시
- 기도비 : 2만원

■ 백중 조상천도 기도: 9월 1일 (음 7.15)

음력 7월15일은 백중, 우란분재일입니다. 이날은 백가지 과일과 음식으로 대덕 스님들을 공양하면서 여러 부처님께 부모님의 공덕을 회향함으로서 수많은 인연영가를 천도합니다.

해원사 백중 조상천도기도에 동참하시어 조상님을 비롯한 인연 영가 뿐 아니라 허공계를 떠돌고 있는 영가를 제도하여 크나큰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공양 올리실 분 : 생미, 과일, 떡, 꽃)

- 일 시 : 9월 1일(토) 오전 10시
- 기도비 : 3만원

법 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업(業) 인과(因果)

선인(善因):깨달음을 지향
하는마음 선업.
수행:정신집중.믿음 확신.
자비심.공덕
기도(업장 소멸):부처님
가피 은혜.신심
바른자세와 호흡 .발원은
모두세계평화
긍정 무대가 사홍서원

▼

락과(樂果):열반 적정.해탈
마음의 평화.행복
두려움이 없다.

업(業):행동
인과응보

악인(惡因):고통스러운
과보를 낳는.악업.
십악 삼독(탐진치)
분별 망상.
무명 욕망은 개인적
이기적 바램으로 대립과
분열번뇌.부정 대가를
바라고욕심에 화의근원

▼

고과(苦果):삼악도.고통
고뇌 무명.

《법구경》 〈악행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허공도 아니요, 바다도 아니다. 깊은 산 바위틈에 들어가 숨어도,
일찍이 내가 지은 악업의 재앙은 이 세상 어디서도 피할 곳 없나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입니다. 이를 보통 인과응보(因果應報)라 하며 이런 결과를 낳은 근원적인 행동을 불교에서는 업(業), 까르마(karma)라고 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즐거운 결과가 따르며, 악한 일을 하면 고통스러운 결과가 온다.”

이런 선인락과(善因樂果) 악인고과(惡因苦果)는 과학적인 인과(因果)의 법칙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당연히 선인락과를 추구하고, 악인고과를 피해야 합니다.

늘 깨달음을 지향하는 마음으로 정신을 집중하고, 믿음을 확신하고, 부처님의 가피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마침내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에 평화가 오고 열반적정에 도달하니 이것이 바로 선인락과입니다.

반면에 항상 악업을 짓고 분별망상으로 탐진치 삼독(三毒)에 빠져 이기적인 마음으로 부정한 대가를 바라면 삼악도에 떨어지고 고통 속에 빠져드니 이것이 바로 악인고과입니다.

부처님은 절대자의 섭리나 정해진 운명을 부정하고, 모든 것은 자신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 성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자신의 의지나 행동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할 수 있으며, 삶의 결과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루에 한 번 선행(善行)을 하고, 그것을 중생에게 회향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 대 방 | 공지사항 및 기도안내

■ 업장소멸, 소원성취 1년 지장기도 안내

지장보살은 석가모니부처님의 부촉을 받아 미래불인 미륵불이 출현하기까지의 무불(無佛)시대에 육도중생을 구제한다는 보살입니다.

"지옥에 단 한 명의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면 이를 구제할 때까지 나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하신 지장보살님의 원력은 대승에서도 최상승의 원력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불문에서도 "대원본존 지장보살마하살"로 예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원사에서는 금년 음력 8월 18일(지장재일)부터 내년 백중재일까지 1년간 업장소멸, 소원성취 지장기도에 들어갑니다.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입　재 : 2012. 10. 3 (음 8.18 지장재일)
- 회　향 : 2013. 8. 21 (음 8.15 백중재일)
- 기도비 : 15만원 (1년)

■ 해원사 · 연화세계 기도안내

구분	기도 종류	일　시
해원사	초하루 3일 신중기도	8.18-20 (음7.1-3)
	칠월칠석기도	8. 24 (음 7.7)
	3일산신기도	8.31-9.2 (음 7.14-16)
	백중천도기도	9. 1 (음 7.15)
	지장기도	8. 5 (음 6.18)
연화세계	약사기도	8. 25 (음 7.8)
	관음기도	8. 11 (음 6.24) 9. 10 (음 7.24)

쉼 터 | 지난소식 및 주요동정

■ 봉축위, '불기 2556년 연등회 시상식' 연화세계 만등만화회 유순모 · 오서연 부부 표창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오후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공연장에서 '불기 2556년 연등회 시상식'을 열어 정진상(7개 단체), 보현상(7개 단체), 원력상(5개 단체)과 개인표창(11명)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연화세계 · 만등만화회 유순모 · 오서연 부부는 개인표창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정명스님과 유순모 회장 부부>

■ 제7회 연꽃축제 및 개금불사점안식 원만회향

지난 8월12일(일) 가평 연화세계에서 열린 제7회 「연꽃축제 및 개금불사점안식」이 원만하게 회향되었습니다. 1부 개금불사 점안식, 2부 연꽃축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가평군 사암연합회회장 승원 큰스님, 이진용 가평 군수를 비롯한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축하해주었습니다.

개금불사점안식

참석한 내외빈

시상/박정숙 회장, 조을순

축사/최계숙 신도회장

축하/ 한상열 거사회장

시낭송(혜명화)

가야금(선재심)

꽃공양(정유진, 임주연)

섹소폰(유순모 신도회장)

선체조(선우스님)

알아봅시다

우란분재 (盂蘭盆齋)

우란분재는 흔히 백중이라 부르는 음력 7월15일에 사찰에서 거행하는 불교 행사이다. 날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우란분절(盂蘭盆節)이라고도 한다.

죽은 사람이 사후에 거꾸로 매달리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 후손들이 음식을 마련하여 스님들에게 공양을 한다.

우란분이란 산스크리트어 'ullamana'에서 나온 말인데 'avalamana'는 거꾸로 매달려 있다[倒懸]는 뜻이다.

우란분재는 불교 경전인 『우란분경(盂蘭盆經)』과 『목련경(目連經)』에서 비롯되었다.

『우란분경』에 의하면, 부처님의 십대 제자 중에 신통력이 뛰어난 제자인 목련(目連)은 어머니가 선행을 닦지 못해 아귀도에 떨어져 배가 고파 피골이 상접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목련이 음식을 가져다주었으나 입에 들어가기도 전에 새까맣게 타서 먹을 수가 없었다. 목련이 비통해하며 그 원인을 물으니 부처님은 죄업의 뿌리가 너무 깊어 그렇게 된 것이므로, 시방의 여러 스님들의 위신력(威神力)으로 구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방법으로 모든 스님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점검하는 자자(自恣)를 행하는 7월 15일에, 과거의 7세 부모와 현세의 부모 중에 재앙에 빠진 자가 있으면 밥을 비롯한 백 가지 음식과 다섯 가지 과일을 우란분(盂蘭盆)에 담고 향과 촛불을 켜서 시방의 스님들에게 공양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수행하고 교화하는 모든 스님들이 이 공양을 받으면, 현재의 부모가 무병장수하며 복락을 누리고, 돌아가신 조상은 고통에서 벗어나 하늘에 태어나 끝없는 복락을 누린다고 하였다.

『목련경』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목련의 모친이 살아서 악행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고생하는 것을, 목련이 대승경전을 외우고 우란분재를 베풀어 지옥, 아귀, 축생으로부터 차례대로 구제하여 천상에 태어나게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의식을 7월 15일인 자자일(自恣日)에 행하는 것은, 수행 정진하는 하안거(夏安居) 석 달 동안 보고 듣고 의심하던 일들을 서로 논의하고 잘못을 고백하여 마무리 짓는 마지막 날이어서 스님들에게 공덕을 올리기 좋은 날이기 때문이다.